전미광장

곽규호



광주문화재단 경영혁신본부장

지난 해 광주문화재단이 주관한 2022아시아 문화포럼의 한 장면입니다. 포럼의 주제는 '다 시 지속가능발전과 문화'였습니다. 첫날 국내 외 저명 학자들의 지속가능발전과 도시, 문화에 대한 담론들이 펼쳐졌고, 둘쨋날에는 아시아 예 술현장에서 작업을 펼치는 작가들의 경험담을 나누는 토크쇼가 진행됐습니다. 국내 예술가로 참여한 '콜렉티브 뒹굴' 이라는, 여성 2명으로 구성된 연극 기반 예술인들의 발표가 아직도 생 생합니다. 30대 전후로 보이는 이 예술인들은 자신들의 활동 경험을 이야기하던 중 기후 위기 를 어떻게 작품으로 풀까 고민했던 상황을 이야 기합니다.

MZ세대 잇단 불안감 표출

"(지구가)기후위기인데 어떻게 작품을 해야 할까 고민했어요. 내가 하는 모든 작업 방식이 기후 위기를 초래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니까, 심지어는 내가 존재하는 것 자체도 회의감이 들 고, 존재를 안 하는 것이 최고의 환경을 보존하 는 방식일 수 있으니까요." 놀라운 발언입니 다. 옆자리에 계시던 청중 한 분이 제게 묻더군 요. "요즘 젊은이들 생각이 정말 이런가요?"

나중에야 이게 기후 우울이라는 걸 알았습니

지역, 청년, 미래…희망은 어디에

다. 기후 위기가 인류에게 위기를 가져올 것이 라는 생각 탓에 발생하는 극심한 불안감을 기후 우울증이라고 한답니다. 이 젊은 작가들만이 갖 는 불안감이 아니라 오늘날의 젊은이들이 갖는 비교적 보편적인 걱정일 것입니다. 최근 결혼이 늦어지고 출산율이 떨어지는 여러 가지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2021년 국회미래연구원의 '미래정책의 국민 선호 연구'에서 국민 3천명을 대상으로 '15년 뒤의 미래는 지금보다 더 좋아질 것인가'를 물 었습니다. 응답자의 56.8%가 '지금보다 더 좋 아질 것'이라고 답한 반면 20대와 30대들은 미 래를 훨씬 어둡게 보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미래를 낙관하고, 기대한다는 응답에 20대는 6.5%에 불과했고, 30대는 10%였습니다. MZ 세대로 불리는 청년들은 미래를 낙관하지 않는 것이 드러나는 통계입니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청년층에서 우울증과 불안장애 환자가 급중했다는 연구조사도 있습 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 해 발표한 자 료에 따르면 2019~2020년 불안장애 환자 수 증 가폭이 가장 큰 연령층은 20대로 무려 127%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우울증 환자 수는 전체 연 령대 중 20대에서 가장 많았고, 증가폭도 제일 컸는데. 2019년 12만2천39명에서 2021년 17만 7천166명으로 45.2%나 급증했습니다. 청년세 대의 위기감은 어제오늘 일은 아니지만 실증적 으로 보여주는 여러 통계와 연구는 이를 더 명확 하게 보여주고, 대책의 시급성을 보여줍니다.

2021년 광주문화재단의 광주예술인실태조 사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 시국에서 광주의 20대 예술인들의 순수한 예술활동 소득은 평균 629만원에서 528만원으로 줄어들었다고 조사 되었습니다. 청년예술인이 다수를 차지하는 대

중음악 • 다원예술 분야 종사 예술인의 이 시기 개인소득 감소율은 4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나 예술 청년들의 심각한 경제적 현실을 보여줬습

광주주광역시와 광주문화재단이 예술 청년 일자리를 위해 몇 가지 일을 시도하고 있긴 합 니다. 지역 문화예술 단체나 법인 · 기업 등에 청년인력을 배치하고 인건비를 지원하는 지역 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으로 40여명을 지원했 고, 그 가운데 12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실 적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사실 예산도 작고 실 적도 초라합니다.

젊은 문화예술 인재 지원

희망은 일자리 정책이 아닌 다른 곳에서 터져 나옵니다. 올 초 광주문화재단이 창간한 문화예 술담론지 '귄있진' 에는 총 26건의 글이 실렸습 니다. 창간사와 화보 몇 장을 제외한 다수가 광 주에 사는 청년예술인, 혹은 문화현장에서 활동 하는 청년들의 글입니다. 눈길을 끄는 주제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저는 '광주에서 기후 정의 운동하기' '지역의 성 소수자들을 호명하기' '19889 전방여성노동자항쟁' 같은 기사들에 관심이 갔습니다. 이런 젊은 문화예술 인재들이 우리 지역에 함께 숨쉬고 있었다고? 게다가 건 전하고 신선한 문제의식과 치열한 취재, 깊이 스며 있는 광주사랑, 자부심 등에 오히려 부끄 러움도 생깁니다.

광주문화재단이 청년일자리 사업도 열심히 추진하면서 앞으로 이런 젊은 문화예술인들을 더 발굴하고 활동 무대를 제공해야겠다는 책임 감도 생깁니다. 다시 '영원한 청춘의 도시 광 주'라는 시구가 떠오르는 아침입니다.

시설

마한역사센터 유치, 상생의 장으로

광주시는 국립마한역사문화센터 유치 희 망 선포식을 열고 본격 유치에 나섰다고 한 다. 광주시는 신창동 유적 등 마한문화 유산 을 대표 관광자원으로 육성하고 아시아 문 화중심도시 실현에 일조한다는 방침이다.

마한은 기원전 3세기~기원후 6세기 태동 한 고대국가로 지역민의 역사와 뿌리, 문화의 정체성을 담고 있다. 마한은 영산강 유역을 근거지로 둔 부족국가들로 백제에 복속되기 전까지 독자세력을 유지했지만 연구・조사가 미흡했다. 광주시뿐 아니라 나주, 영암, 해 남, 함평 등지에서 마한의 고분과 옹관묘, 농 경구, 악기 등이 출토되는 등 마한의 역사문 화가광주·전남의소중한문화유산으로재조 명되고 있다. 마한역사문화센터는 이 같은 문 화유산의 연구・홍보를 위한 기관으로 문화재 청이 국비 2억원을 들여 건립 타당성 용역을 추진 중이다. 올 하반기에 건립 대상지가 선 정될 예정이다. 이에 광주시뿐 아니라 유적지 로 포함된 전남 지자체들이 유치 희망을 강력 히 내비치며 활동에 들어간 상태다.

문제는 이 같은 마한역사문화센터 유치를

위해 지자체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부작용 이 우려된다는점이다. 마한역사문화공동체 인 광주와 전남이 관련센터를 유치하는 과 정에서 상생보다는 지역 이익에 매몰돼 공 동체란 대의적 가치를 잃을 수 있다는 것이 다. 그동안 광주와 전남, 전북지역 등이 협 력해 마한 역사문화권 복원과 세계화를 적 극 추진하기 위해 관련 사업을 초광역협력 사업으로 진행해왔으며 다양한 학술 및 문 화 행사 등을 펼쳐왔다. 마한역사문화센터 유치를 앞두고 마찰을 벌일 경우 취지는 퇴 색하게 되고 향후 연구 홍보 과정에서도 불 협화음이 예상된다.

앞으로 곳곳에 방치된 마한의 비지정 문 화재에 대한 역사적 가치 규명과 정비, 나아 가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통해 세계화 를 달성해야 할 과제가 놓여 있다. 이 같은 복원 사업이 민족적 자긍심과 함께 지역 정 체성 확립, 지자체 간 연대 강화,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신성장 동력으로 전환돼 야 한다. 상생과 화합, 연대를 위한 자리가 마련돼야 할 것이다.

전남관광 '바가지 상혼' 내버려 둘건가

전남을 찾는 관광객들 사이에서 음식값과 숙박비 폭리 등 이른바 '바가지 상혼'에 대 한 원성이 빗발치고 있다고 한다. 전남 방문 의 해 2년차인 올해 굵직한 행사들이 연이어 개최되는 가운데 전남에 대한 비호감이 이 들 이벤트 성공개최의 발목을 잡는 것 아니 냐는 우려가 나온다.

전남에서는 오는 4월 순천만국제정원박람 회를 시작으로, 국제수묵비엔날레, 전국체육 대회, 국제농업박람회 등 도내 전역에서 이른 바 '4대 행사'가 잇따라 개최된다. 국제남도 음식문화큰잔치 등 굵직한 행사도 이어지고 크고 작은 지역축제도 연중 100여개가 열린 다. 코로나 일상회복과 맞물려 여행과 휴식 등 관광 시즌이 본격화된 것으로, 도내 축제장과 주요 관광지마다 인파들이 넘쳐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소위 '한철·한탕'을 노리는 '바가지 요금'도 덩달아 기승을 부리면서 있다고 한다.

·보배드림·네이버 카페 등을 확인한 결과, 은 공허할 뿐이다.

도내 관광지에서 판매하는 음식과 숙박들이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을 받는다는 글이 수십 여개 올라와 있고, 관련 댓글도 잇따랐다. 이 같은 불만은 특히 오는 10월 전국체전을 앞 둔 목포시에서 두드러졌다. 목포를 방문해야 하는 외지인들과 선수단은 일부 숙박업소들 이 사전예약을 받지 않고 평상시보다 2~5배 를 요구하고 있는 실태를 호소했다. 이들은 "목포 경기장 인근 숙박업소들이 당일이나 하루 전만 예약을 받는다며 배짱장사를 하고 있고, 경기장과 조금 떨어진 곳도 2~5배 높 게 가격을 불러 인근 나주, 영암, 신안 등을 알아보고 있다"며 불편함을 토로하고 있다.

전남도는 올해를 '글로벌 전남 관광 원 년'으로 선포하고, 관광객 1억명 유치에 도 전하고 있다. 어제는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대규모 페스티벌까지 열었다. 이 같은 행보 와 달리 현장에선 먹고 자는 문제를 둔 불편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의 불만이 폭주하고 과 불만이 넘쳐난다. 전남도와 일선 지자체 들은 무엇이 먼저인지를 따져봐야 한다. 현 실제 본지 취재진이 유튜브·디시인사이드 장의 목소리를 외면한 '글로벌 전남 관광'

에세이

박덕은



문학박사·화가·전 전남대 교수

암이 재발해 다시 수술한 그는 라면으로 끼니 때우며 옥탑방에서 힘겹게 살아가고 있었다. 언 제부턴가 그는 생(生)의 닻을 슬픔이라는 벼랑 에 내리기 시작했다. 그 벼랑은 축축하고 어두 워 혼밥과 혼술만 드나들었다. 철썩철썩 부서지 는 외로움의 따귀 맞으며 그의 고립은 그 누구 와도 통성명을 하지 않았다. 간혹 탈출하고 싶 은 서러움이 벼랑 끝에서 뛰어내리지만 얼굴 뭉 개진 비참함이 늘 기다리고 있었다.

한때는 개성공단과 손잡고 옷감을 재단했던 황홀한 꽃시절도 있었다. 그는 꽤나 손재주 좋 은 양복 재단사였다. 먼 항로의 안과 밖을 꼼꼼 하게 박음질하며 매듭 지었다. 뜯어지는 성질이 많은 위험한 항해도 깁고 자르고 이어 붙이며 만선의 배로 귀향했다. 그의 내일은 짱짱한 짜 집기처럼 바느질이 잘 되어 있었다. 그 어떤 폭

마지막 항해

풍우가 몰아쳐도 잘 박음질 된 그의 출항은 무 사할 것 같았다. 순항으로 이어지면서 그는 사 랑하는 여인을 만나 가정을 이루고 아들도 하나 두었다. 보글보글 한 솥의 노을을 끓여 식구들 과 함께 저녁을 먹었다. 서로의 눈이 마주치면 갯메꽃이 피었고 함께 걸으면 해당화가 피어났 다.

어느 날 알 수 없는 물살이 흘러들더니, 갑자 기 그 여인은 아들과 함께 사라졌다. 해도(海 圖)에도 없는 바다 가시들이 막무가내로 자라 그를 찔러댔다. 그 가시는 삶의 풍향계마저 망 가뜨렸다. 그는 가시에 찔리지 않으려고 애썼지 만, 뭉텅뭉텅 바다의 살점들이 빠져나가 희망이 라는 월척의 꿈은 자꾸만 삐거덕거렸다. 수중의 속도를 제대로 재단하지 못한 폐선 같은 하루는 눈만 뻐끔거리는 서러움만 가득했다.

그는 항해술이 허술해 통증처럼 파고드는 해 거름을 견디지 못하고 술에 취해 있는 날이 많 았다. 잠시라도 꽃시절의 영광 같은 돛을 다시 펼치고 싶었던 것일까. 술에 취하면 어김없이 뱃머리에 짱짱한 햇살을 파종하듯 호기롭게 노 래를 불렀다. 술기운에 취한 번들거린 졸음이 길바닥에 닻을 내리는 날이 많아질수록 그의 병 은 깊어만 갔다. 뜯어진 해수면의 솔기를 출렁 출렁 기우며 내달렸던 배는 더이상 출항하지 않

았다. 취기에 내동댕이쳐진 물의 걸음은 주저앉 았다. 폐유처럼 떠다니는 어둠이 스며들어 폐선 처럼 녹슬어 갔다.

하루는 그가 전화를 했다.

"살고 싶지 않아요. 살 이유가 없어요."

"아들이 보고 싶지 않아?"

"내가 아버지인지도 모를걸요."

"아들은 만나 보기나 했어?" "먼발치에서 보기만 했어요."

"죽을 생각 하지 말고 시집 한 권 내서 아들한 테 선물해 줘."

"시집을요?"

문학을 사랑하는 그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

목울대를 치고 솟구치는 따스한 해류가 한 방 향으로 모여들고 있었다. 어느 해협에서 꽃 진 위도와 경도를 다시 짚어보는지, 한동안 말이 없었다. 시집이라는 꿈이 아들과의 향긋한 정박 에 입술이 닿았는지 그의 침묵이 싱싱했다. 이 제 그의 벼랑은 환하고 눈부신 비상구가 될 것 이다. 잡힐 듯 잡히지 않는 해무와 내일을 끌어 와 외롭고 고달픈 그 벼랑 끝자리에 희망의 꽃 씨를 심을 것이다. 그는 시어들의 항해일지를 준비하려는 듯 헛기침을 했다. 먼 곳에서 뿌우 뱃고동 소리가 들렸다.

일탈 아닌 '일상' 이 된 마약

독지광장

유명연예인, 재벌 2세의 마약투약, 청소년 마 고 있다. 약거래 등의 소식을 뉴스를 통해 심심치 않게 접하게 된다. 그만큼, 마약이 먼 나라 이야기라 는 말은 옛말이 된 지 오래다. 가장 심각한 문제 는 바로 젊은 세대의 마약범죄가 늘고 있다는 점이다. 마약 투약을 넘어 유통범죄까지 가담하 는 등 마약 관련 범죄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21년 10,626명 마약 류 사범을 검거했던 것에 비해 2022년도에는 12387명을 검거해 1681명(15.8%) 증가하는 등 갈수록 마약류 범죄가 늘어나는 추세이다.

그래서 전남경찰청도 마약류 집중단속을 통 해 22년도 344명을 검거했고, 지능화·다변화 되는 마약범죄 수법에 대응하기 위해 전문수사 팀 운영 및 보건복지부, 관세청 등 유관기관과 정보를 공유하며 마약공급을 막기 위해 노력하

마약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경찰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에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마 약류 사범에 대해 법적으로 처벌 수위를 강화, 일반인이 마약에 접근하기 어려운 제도 등을 마 이뤄져야 할 것이다.

마약을 개인의 일탈로 치부하기에는 이어지 는 2차 범죄로의 위험성이 커졌기에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돼야 하며, 정부기관뿐만 아니라 주 위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며 우리 모두 경각심을 련함과 동시에, 마약중독자에 대한 집중치료도 가져야 한다. /주미정 보성경찰서 경무계 경장

1989년 6월 29일 창간		전님	날매일 200	05년 9월 21일 등록번호 광주가 14(일간)
회장 🕏	卜哲弘 대표	이사·발행인·편집	일인 金善男	편집국장 姜 聲 秀
jndn.com 대표전화 0		62) 720-1000	구독 신청 및 배달안내 720-1004, 010-4605-7721	
경제부 (0 사회부 (0	062) 720-1060 062) 720-1067 062) 720-1050 062) 720-1043	문화체육부 사진부 편집부 뉴미디어본부	(062) 720-1071 (062) 720-1040 (062) 720-1073 (062) 720-1006	사업국 (062) 720-1011 광고국 (062) 720-1016~17 관리국 (062) 720-1012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기사제보 jndn@chol.com	
우) 61639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좌로 398 (사동)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외부 필자의 글은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알레르기 조심, 아나필락시스 주의보

독지투고

추종민



여수소방서 여서119안전센터 소방장

특정 물질에 노출된 후 급격하게 진행하는 전신 적인 과민반응으로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한 질환이다. 이러한 질환을 예방하고, 대처하기 위해서는 원인물질을 파악 하여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발생 시 증상 을 인지하며, 적절한 응급처치법을 숙지하는 것 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아나필락시스의 원인으로는 모든 물질에 반 응하여 나타나지만 크게 계란·우유·땅콩·해산 물・밀가루・과일 등과 같은 음식물에 의한 요 인, 진통제・항생제・조영제 등의 약물에 의한 요 인, 곤충의 독·운동·온도변화와 같은 물리적인 요인에 의해서 발생한다.

증상으로는 과민반응 물질에 접촉한 후 수 분 혹은 단시간에 나타나며 두드러기 가려움증의

알레르기 증상부터 기침·구토·설사·호흡곤란 ·안면부종·두근거림·의식변화 등의 전신반응 이 나타나 심하면 사망하는 경우도 있다.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119에 신고해 최대한 빨리 응급실로 가야한다. 119에 신고 후 구급차 가 오기 전 시행해야 할 응급처치에 있어 가장 우선시해야 하는 점은 증상을 유발한 원인을 제 거하는 것이다. 허나 무리한 시도는 환자의 증 상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유발원인이 확실하 고, 제거가 가능한 경우에만 시행해야 한다. 평 평한 곳에 환자를 눕히고 의식, 호흡, 맥박을 체 크하며 환자를 관찰해야 한다. 머리를 뒤로 젖 아나필락시스라고 불리는 알레르기 쇼크는 혀기도를 개방해주고, 다리를 올려서 혈액순환 보조를 도모해주는 것도 도움이 된다. 환자가 에피네프린 주사를 휴대하고 있다면 지침에 따 라 주사를 투여해야 한다.

> 하지만 아나필락시스 환자에게 있어 가장 중 요한 대책은 자신의 증상을 유발한 원인을 정확 히 알아 이후에 다시 노출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다. 대부분은 증상 발생은 예측할 수없으므로자신이 아나필락시스환자이고, 어 떤 물질에 과민반응이 있는지를 메모해서 핸드 폰, 지갑에 넣어두거나 목걸이로 만들어 걸고 다니는 것도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도움이 된 다. 정신을 잃고 쓰러졌을 경우 주변 사람이 그 원인을 짐작해 적절한 응급처치를 시행할 수 있 고, 약물에 의해 발생한 경우 원인 약물이 재차 투여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